



고려해운

어촌자매결연 우수업체 선정

고려해운(대표 최영후)이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 자매결연 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9월8일과 9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등 관계 기관 담당자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협중앙회 천안연수원에서 개최된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 자매결연 확대 워크숍'에서 고려해운을 비롯한 6개 기관의 어촌 자매결연 활동이 우수사례로 발표되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특강, 정책방향의 설명, 사례발표, 분임토론 등을 통해 어촌관광과 자매결연을 확대,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의 최익영 어촌어항과장은 '100사 100촌 운동'을 통한 어촌 자매결연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고려해운과 울산의 당사 어촌계간에 추진하고 있는 여러 자매결연 활동을 포함하여 몇 가지 사례를 자매결연 활동 우수사례로 소개하였다.

현재 고려해운은 가구수 101호에 인구 306명의 작은 어촌계인 울산의 당사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지난 5월 고려해운은 자매결연의 파트너로서 규모가 큰 어촌계와 형식적인 자매결연을 맺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 어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어촌계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울산의 당사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다.

고려해운은 울산사무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당사어촌계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으로 인한 상호 협조사항,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교류프로그램

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지난 여름 휴가기간에는 당사어촌계의 민박을 이용한 휴양소를 마련하였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는 우리 회사 임직원들에게 당사어촌계에서 생산하는 건조자연산 미역을 구매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사 100촌 운동'은 최근 자원의 감소, 어장축소, 수입수산물 증가 등 어업여건의 악화로 어촌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을 타개하기 위한 운동으로, 도시지역 근로자들이 어촌 지역을 자주 방문하여 어촌의 어려운 실상을 이해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본 운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참여업체의 세제혜택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려해운은 '100사 100촌 운동'이 어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데 뜻을 함께하여 현재의 활동이 단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울산 당사어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대한해운

운수창고 최고기업상 수상

대한해운(대표 이진방 / www.korealines.co.kr)이 사단법인 한국경영인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고기업대상 시상식에서 운수창고 부문 최고기업상을 수상하였다.

9월26일 조선히텔 그랜드 볼룸에서 각계 관계



자가 모인 가운데 거행된 이 시상식의 수상업체는 △거래소와 코스닥 등록기업 중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ROE 및 영업이익률 5%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경상이익 기준 2년 연속 흑자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한 약 1,500여 개 업체 중 실적과 기업규모,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주주중심 경영 등 5개 부문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올해로 네 돌을 맞은 이 상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세계적 최고기업으로의 성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경영인협회와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가 공동 개발하고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회장 윤계섭, 서울대 교수)가 최종심의하였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매출 1조1,500억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500여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지난 2004년 종업원 1인당 순이익은 7억5,200만원으로 국내 상장기업 중 최고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였고, ROE 또한 91.02%로 국내 최고를 기록함으로써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전문 선사로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신성해운

ERP 시스템 구축 추진

신성해운(대표 박영규)은 최근 해운·물류 IT 회사인 싸이버로지텍을 통해 정보지원체계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ERP 시스템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 정보를 정확하게 적기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최근 급변하는 세계 경제, 해운 시장과 유가에 민감한 해운 기업의 경영혁신 및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 시스템이다.

신성해운은 이번 프로젝트를 현행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문제점 개선, 본사와 지점 및 해외 대리점의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편리성 증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및 확장성을 보유한 시스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Enterprise Portal을 통해 내부직원, 대리점, 선박, 정부기관,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유기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며, 비즈니스와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으로 일원화된 업무 흐름이 보장된다.

또 Single Sign On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외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성해운의 ERP 시스템을 설치하는 싸이버로지텍은 한진해운의 IT 아웃소싱을 전담하고 있으며, 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아웃소싱 사업에 이르기까지 해운물류정보시스템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운물류 IT 전문기업이다.

SK해운

올타리 공동체 봉사활동

SK해운의 이정화 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자원봉사단원들은 10월5일 파주에 있는 올타리 공동체를 방문하여 여름 이불 및 옷가지 빨래를 돕고 환경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올타리 공동체는 정신지체장애우들의 공동생활 시설로 SK해운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겨울 김장을 위한 발갈기, 씨뿌리기, 감자캐기 등의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자원봉사단은 빨래뿐만 아니라 돌담을 쌓아 담장을 조성하고, 겨울 김장철을 대비하여 김장독을 청소하며 장애우들과 정을 나누었다.

이어 SK해운은 10월10일 결혼결식 학생 및 소년소녀 가장을 초청, 유조선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불우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솔지도교사 10명과 학생 10명 등 20명이 이날 오후 3시 장생포 세관 통선장에서 통선을 이용해 유조선으로 이동, 견학하고 다과회를 가지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승선한 선박은 SK해운 소속 파나마 국적의 C. EMPEROR 호이며 길이 323m, 너비 59m의 30만톤급 유조선이다.

SK해운 관계자는 “인솔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견학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줌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좋은 추억거리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해운은 스텔라해운의 지분을 기존 70%에서 80.82%로 확대했다고 9월27일 공시했다. 스텔라해운은 LNG수송사업을 위해 SK해운

이 70%를 출자하고 일본계 은행인 일본수출입은행, 미츠비시은행 등이 30%를 투자하여 1999년 2월에 만든 합작법인으로 SK해운이 70% 지분을 그리고 ITOCHU Corporation사가 12%, Kawasaki Kisen Kaisha사와 Nippon Yusen Kabushiki Kaisha, Mitsui O.S.K Lines사가 각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지분을 확대는 스텔라해운이 주주배정증자방식으로 최근 60만주를 신주발행함에 따른 것으로 이중 SK해운이 42만주를 매입해 94만 800만주로 확대해 지분율을 80.82%로 확대했다.

STX팬오션

대한통운 지분 21% 매입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이 대한통운 주식 21.02%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떠올랐다. STX팬오션은 10월6일 법정관리 상태인 대한통운 주식 21.02%를 주당 7만원씩 1627억원에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STX팬오션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고 싱가포르 증시에도 상장됨에 따라 4000억원 규모의 자금 여력이 있었으며 이번 지분인수로 대한통운 인수를 통해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조선·해운 등 수직계열화로 진용을 갖춘 STX그룹(회장 강덕수)이 인도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최근 인도를 방문 현지 정부 관계자 및 해운·조선업계 최고 경영자(CEO) 등과 잇따라 접촉을 갖고 협력방안을 모색중이다.

STX그룹에 따르면 해운 계열사인 STX팬오션은 인도 델리에 위치하고 있는 현지 사무소를 내



년에 현지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STX팬오션은 이를 통해 중동 및 아프리카·유럽노선으로 영업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STX팬오션은 석탄과 철광석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시장을 겨냥, 벌크선과 컨테이너선·탱커·가스운반선 등의 사업분야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TX조선 선박 설계 및 제조, 조선소 운영 노하우 등 조선산업 전반에 걸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의 인도 현지 조선소와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 회장은 지난 10월5일 뉴델리 정부청사에서 탈리코타이 라주드바 발루 인도 해양운송부 장관을 만나 내년 초 STX팬오션의 인도 현지법인 설립 등 해운시장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강 회장은 인도의 물류 중심지인 뭄바이를 방문해 라니 자다브 뭄바이 항만청 회장, 인도 최대 국영 선사인 SCI사 회장 등과 연쇄 접촉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STX그룹 관계자는 “인도는 철강산업이 발달돼 있고, 풍부한 인력자원을 갖추고 있어 조선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STX팬오션과 STX조선 등 해운·조선 계열사들의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

중국에 수리조선소 건설

한진해운이 국내 해운업체 처음으로 중국에 수리 조선소를 세운다.

한진해운은 최근 중국 순화해운과 합작으로 저장성 취산도에 전용 선박 수리 조선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10월6일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규 투자를 결의했으며 이달 중순께 합작 파트너인 순화해운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중국에 추진중인 수리 조선소는 안벽 길이만 1,430m에 달하며 15만톤부터 30만톤, 40만톤의 도크가 각각 1기씩 건설된다. 이중 15만톤과 30만톤의 도크는 내년말 완공되는데 이어 40만톤급 도크 1기는 2007년 말까지 완공, 2008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조선소가 완공될 경우 8,000TEU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 수리도 가능해 진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총 투자금액은 8,000만 달러로 이중 한진해운은 50%인 4,000만 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순화해운은 중국 칭다오에 기반을 둔 내륙 해운운송업체로 지난 6월부터 50대 50의 지분 투자를 통한 선박 수리조선소 건설을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해운업체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수리 조선소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신조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박 수리업무를 기피하면서 국내 대형선박 수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최근 선박 대형화로 대형 컨테이너선 수리를 위한 전용 도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 왔다”며, 그러나 국내 선박수리 시설이 부족해 국내외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이 선박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수리 조선소 확보로 대형선박들의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선사 선박의 수리물량을 확보하는 등 사업 다각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상선

영국 해운전문로펌과 인력교환

현대상선(대표 이재현)이 업계 최초로 영국 해운전문 로펌과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현대상선은 10월5일 영국 로펌인 '모어 피셔 브라운' (More Fisher Brown)의 가이 히깅슨 변호사와 현대상선 보험법제부 직원을 각각 3주간 상대방 회사로 파견 하는 교환 프로그램을 갖는다고 밝혔다.

가이 히깅슨 변호사는 부산 기항 현대상선 선박에 방선하는 체험 교육을 받고 각 영업부 담당자들과 만나 해상법에 관한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영국에 파견된 현대상선 직원은 △영국법원 시스템 연수 △영국 중재시스템 교육 △영국 해상법 실무연수를 받게 된다.

현대상선은 10월6일 본사사옥 12층 대회의실에서 가이 히깅슨 변호사를 초청, 해운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엇보다 이번 세미나에는 현대상선을 비롯하여 국내 해운회사의 법무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해 국내 해운업계의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상선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내 해운업계의 법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상선은 10월7일 제주도 서귀포시 어촌마을 법환동에서 노정익(盧政翼)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마을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상선-법환동' 간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자매결연식에서 노정익 사장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현대상선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법

환동이라는 제2의 고향이 생겼다"며, 앞으로는 저희 현대상선 임직원들은 법환동을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자주 찾아오고, 어려울 때 돕고 기쁨 또한 나눌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상선과 법환동 주민들은 전 세계적인 단발성 행사보다는 작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터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현대상선 임직원들은 어촌주민 회사 견학, 갈치·굴 등 지역 특산물 직거래 등을 추진하고, △법환동은 저렴한 가격의 특산물 제공, 현대상선 임직원 및 가족 체험 견학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상호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대상선측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서울의 도심에 묻혀 있는 현대상선 임직원들과 100여명의 해녀가 살고 있는 제주도 법환동 주민들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도시와 어촌의 건전한 문화 교류를 통해 삶에 활력을 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으로 변경

위험물 해상운송의 안전과 기술진흥을 위해 지난 1989년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위험물해상운송 전문 검사기관인 재단법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가 '재단법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으로 법인의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원장 서상범)에 따르면 미래지향적인 법인의 명칭을 변경해 공공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다 나은 양질의 위험물검사서비스



스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나라 위험물안전운송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법인 명칭에 걸맞도록 영역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1989년에 설립된 이래 매년 괄목할만한 업무신장을 통해 위험물운송의 안전 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는 등 국내유일의 위험물해상운송 전문검사기관으로 발전해 해상 안전 도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설립초기에 비해 2005년 현재 무려 720% 성장해 약 3만7,000여건의 위험물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송하주, 제조자 등 위험물을 직·간접으로 취급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험물해상운송 및 취급종사자 교육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 위험물취급안전관리 의식고취 확산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위험물 관련 국제회의에 직원을 수시로 파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국제동향 및 선진기술을 습득해 업·단체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국제협력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환 신임원장 취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환 원장이 지난 9월 2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정환 신임 원장은 1947년 4월생으로 서울대 사범대 지리교육과를 졸업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개발실장과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및 농업공무원 교육원 감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과 대통령비서실 농수산 비서

관,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전문위원, 해양부 해양정책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한바 있다. 한편 재임기간은 2005년 9월 23일부터 2008년 9월 22일까지 3년간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획조정실장에 양창호 해운물류항만연구실 항만시스템팀장을 선임하는 등 임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기획조정실장 양창호(梁昌虎) 연구위원 △행정실장 윤영돈(尹泳敦) 1급관리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김경신(金璟信) 2급관리원 △기획조정실 연구조정과 한창동(韓昶東) 2급관리원 △행정실 총무과장 김용빈(金容彬) 2급관리원 △행정실 회계과장 김창하(金昌河) 1급관리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여수지부 현판식 거행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 여수지부가 9월14일 박재영 이사장과 민경태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이전(여서동 222번지 해양수산업청사)에 따른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은 기존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사와 여수시의 구 시청 2청사 건물을 국유재산 및 지자체 재산변경계획에 의거 교환하게 됨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여수지역 해양수산업관련 단체가 같이 입주하게 되어 합동 현판식 형식으로 개최됐다. 해양수산업청사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선박기술검사협회 등 4개기관이 입주했다.

전화 : 061-654-6431/3, 팩스 : 061- 654-6430